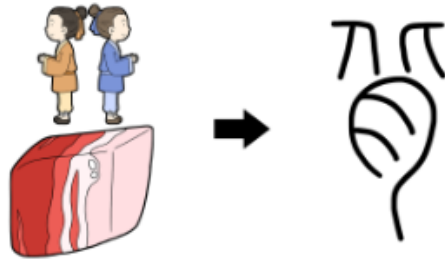


4(2)  
-  
71

회의문자①



背

등 배:

背자는 '등'이나 '뒤', '등지다', '배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背자는 北(북녘 북)자와 月(육달 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北자는 두 사람이 등을 서로 맞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갑골문과 금문에서는 北자가 '등 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가옥의 형태가 남향으로 정착된 이후 北자는 남쪽의 반대 방향인 '북쪽'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여기에 月자를 더한 背자가 '등 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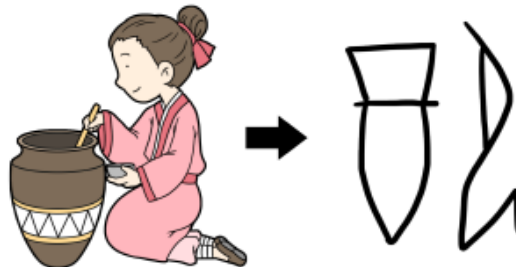
소전



해서

4(2)  
-  
72

회의문자①



配

나눌/짝  
배:

配자는 '아내'나 '짝지다', '걸맞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配자는 酉(닭 유)자와 己(자기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配자를 보면 술 단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술이 잘 익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술은 숙성시키는 과정이 잘못되면 식초로 변해버린다. 그러니 配자는 술이 잘 익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에 配자는 '아내'나 '짝'이라는 뜻이 파생되었는데, 술이 잘 숙성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듯이 아내감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의미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配자에 '딸리다'나 '예속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모두 '아내'라는 뜻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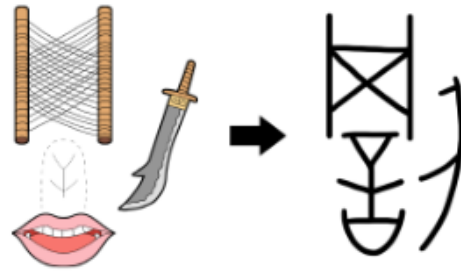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罰

벌할 벌

罰자는 '벌하다'나 '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罰자는 網(그물 망)자와 言(말씀 언)자,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罰자는 한 글자씩 해석해야 본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網자는 그물을 그린 것으로 여기에서는 '(죄인을)잡다'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言(말씀 언)자는 '말'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꾸짖다'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刀(칼 도)자는 '형벌'이라는 의미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罰자는 '죄인을 잡아(網) 꾸짖고(言) 형벌을 내린다(刀)'란 뜻이다.

罰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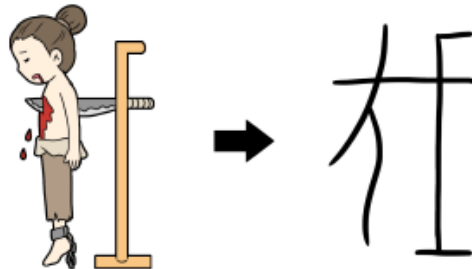
罰

소전

罰

해서

회의문자①



伐

칠[討]  
벌

伐자는 '치다'나 '베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伐자는 人(사람 인)자와 戈(창 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戈자는 낫이 달린 창을 그린 것으로 '창'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伐자의 갑골문을 보면 戈자에 사람이 매달려있는 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적을 잡아 목을 베었다는 뜻으로 伐자의 본래 의미는 '목을 베다'였다. 갑골문에는 '伐+美(벌십강)'이란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강족 10명의 목을 베었다"라는 뜻이다. 伐자는 이렇게 적의 목을 베다는 뜻이었지만 후에 '치다'나 '정벌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伐

갑골문

伐

금문

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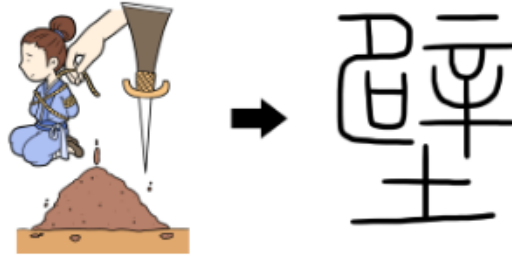
소전

伐

해서

4(2)  
-  
75

회의문자 ①



壁

벽 벽

벽자는 '벽'이나 '남떠러지', '성의 외곽'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벽자는 土(흙 토)자 辟(피할 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辟자는 죄수나 하인을 그린 것으로 '피하다'나 '벗어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담벼락은 외부로 하여금 내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 壁자에 쓰인 辟자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壁자는 흙을 쌓아 외부의 시선을 피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壁자가 항상 흙으로 만들어진 것만을 뜻하진 않는다. 담벼락처럼 큰 남떠러지도 壁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적벽대전(赤壁大戰)으로 유명한 중국 허베이성의 적벽산(赤壁山)이 바로 그러하다.

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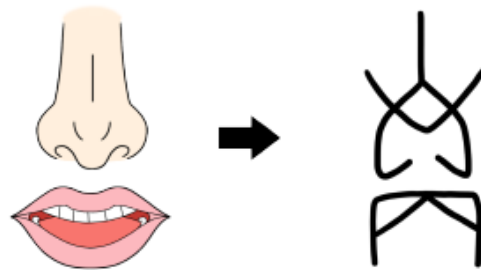
소전

壁

해서

4(2)  
-  
76

회의문자 ①



邊

가[側]  
변

邊자는 '가장자리'나 '측면', '변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邊자는 辵(스스로 자)자, 穴(구멍 혈)자, 方(모 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邊자의 갑골문을 보면 自(스스로 자)자만 畵(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코와 입술을 표현한 것으로 서로의 위치가 '아주 가깝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內자는 의미와는 관계없이 입술로 응용된 것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辵자와 方자가 더해지면서 길가의 가까운 방향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邊자는 '길가의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의미에서 '가장자리'나 '측면', '변방'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邊

갑골문

邊

금문

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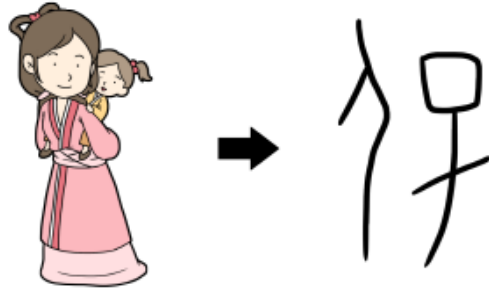
소전

邊

해서

4(2)  
-  
77

회의문자①



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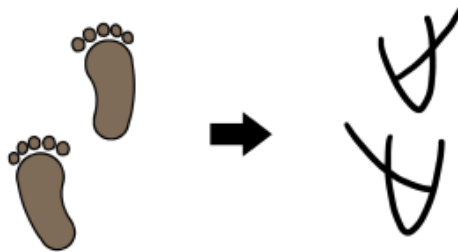
지킬  
보(:)

保자는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保자는 人(사람 인)자와 呆(어리석을 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呆자는 子(아들 자)자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뜻과는 관계없이 아이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保자의 갑골문을 보면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 𠂔 그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保자는 부모가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에서 '보호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글자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78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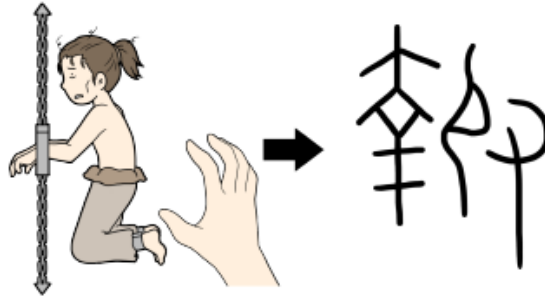
步

걸음 보:

步자는 '걸음'이나 '걸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步자는 두 개의 止(발 지)자가 위아래로 결합한 모습이다. 지금의 步자는 마치 止자와 小(적을 소)자를 결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래에 있는 획은 止자가 변형된 것이다. 步자의 갑골문을 보면 길게 빠져나온 엄지발가락이 좌우로 함께 𠂔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사람이 걷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步자는 '걸음'이나 '걸음 걸이'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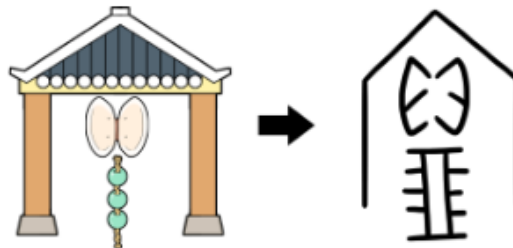
報

값을/알  
릴 보:

報자는 '값다'나 '판가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報자는 執(잡을 집)자와 又(또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報자의 금문을 보면 수갑을 찬 죄수를 잡으려는 듯한 執 모습이 그려져 있다. 글자의 형태로만 본다면 같은 시기에 그려진 執(잡을 집)자와 비슷하다. 다만 報자에는 又(또 우)자가 있으므로 수갑을 차고 있는 죄수를 붙잡아두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죄수를 붙잡아둔 모습이 왜 '값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일까? 報자에서 말하는 '값다'라는 것은 사실 벌을 받아 죄값을 치르라는 뜻이다.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寶

보배 보:

寶자는 '보배'나 '보물'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寶자는 宀(집 면)자와 玉(옥 옥)자, 缶(장군 부)자, 貝(조개 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寶자의 갑골문을 보면 宀자와 玉자, 貝자만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집안에 보석이나 돈이 많다는 뜻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향아리를 뜻하는 缶자가 더해지게 되었는데, 이는 향아리에 재물이 가득 담겨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寶자는 이렇게 집안에 재물이 가득한 모습으로 그려져 '보배'나 '보물', '진귀한'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